	<b>인도(뉴델리) 통상사무소</b> <b>해외동향보고서</b>	작성팀	마케팅지원팀
		담당자	하 승 창 소 장
		일 시	2023년 3월

## CEPA Insight

- 미·중·러 갈등으로 중국을 대신할 글로벌 생산지기로 '인도' 급부상
- 인도 정부주도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환경 개선
- 글로벌 기업이 인도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거나 투자 진출하고 있음
- 인도진출에 준비 또는 관심 도내기업에 대한 지원책 필요

### < 2023년 2월 기준 對 인도 교역현황 >

구분	수출액	전년 동월대비 증감율	수입액	전년 동월대비 증감율	무역수지
전국	2,958,615천불	5%	1,042,417천불	-21.7%	1,916,199천불
충남	333,525천불	-33.6%	51,549천불	6.8%	281,976천불

※ 출처 : 한국무역통계(<http://stat.kita.net/>)

## ■ 미·중·러 갈등으로 중국을 대신할 글로벌 생산지기로 '인도' 급부상

- 지속적인 인구증가, 거대소비시장, 양질의 노동력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
  - 높은 경제성장률 : 국제통화기금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인도 연평균 성장률 6.8%로 중국 연평균 성장률 4.9%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함
  - 폭발적인 인구증가 : 유엔은 인도의 올해 인구 14억 명을 넘으면서 중국을 제치고 1위 인구 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. 인구 증가는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높아지며, 부양부담이 축소된 이들이 소비와 투자를 늘려 경제성장을 이끌 것으로 분석함

## ■ 인도 정부주도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환경 개선

- 2017년 상품서비스세금(GST, Goods and Services Tax) 도입
  - 상품서비스세금(GST)는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다른 세율로 부가하던 17개 간접세를 하나로 통합한 세금제도이며, 주별로 세금을 다르게 부과하면서 타 지역 간 이동시 세금징수가 발생하던 불편함을 최소화함

## • 철도·공항·도로건설 등 교통 인프라 개선 및 신규 구축

- 인도는 델리, 뭄바이, 첸나이, 콜카타, 방갈로 등 도시 간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로 연결하고 항만 및 공항시설을 현대화함. 모건스텐리에 따르면 인도 도로는 2001년 2,274km에서 지난해 6,388km로 2배 증가했고, 철도를 연장해 전철화가 이뤄진 곳도 같은 기간 24%에서 80%로 확대됨
- 인도 북동부 지역에 길이 2,011km의 신규 철도건설, 752.9km의 4차선 도로확충, 공항 17개로 확대하는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북동부 지역 인프라 개선 추진중임

## • 초과근무시간 확대, 여성노동자 야간근무 규정완화 등 노동개혁 추진

- 아이폰 조립업체 폭스콘 공장이 신설되는 카르나타주에서 최대 9시간까지 가능했던 교대 근무 시간을 12시간으로 늘릴 수 있도록 법개정을 통해 12시간씩 2교대근무로 24시간 공장을 가동할 수 있게 함. 또한, 공장 가동 시간 증가와 허용되는 초과근무수의 거의 두 배 가량 증가, 여성 야간 근무에 대한 규정 완화 등도 추진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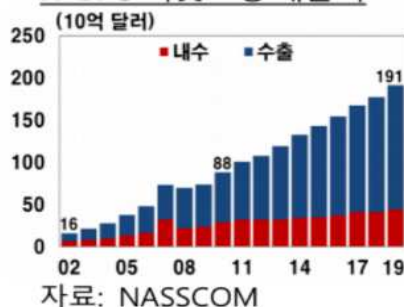
## ■ 글로벌 기업이 인도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거나 투자 진출하고 있음

### • 미국과 중국 간 힘겨루기 지속에 따라 시장 다변화 및 공급망 확대를 위해 인도로 다국적 기업이 이동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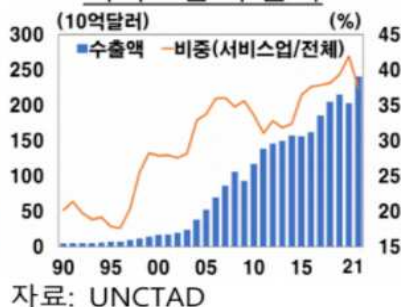
- 애플(APPLE)의 위탁생산업체 폭스콘 인도로 이전 : 2년 내 인도 아이폰 공장인력을 1만 7천명에서 7만명으로 확대하며, 인도비중은 현재 5%에서 2025년 25%까지 확대
- IT 아웃소싱 기지로 활용기업 증가 : 인도공과대학에서 배출된 우수기술인력이 많고, 영어 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이며, IT-BPO사업\*은 2003년부터 2007년 연평균 35.3% 증가하며, 2010년 이후 10%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

\* 콜센터, 회계, 인사관리 등 비즈니스 프로세스 일부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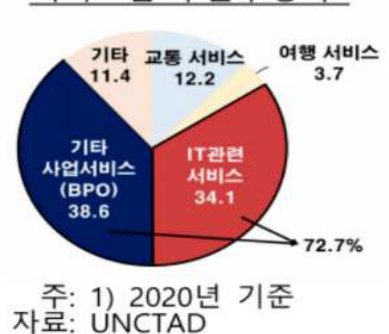
IT-BPO 아웃소싱 매출액



서비스업 수출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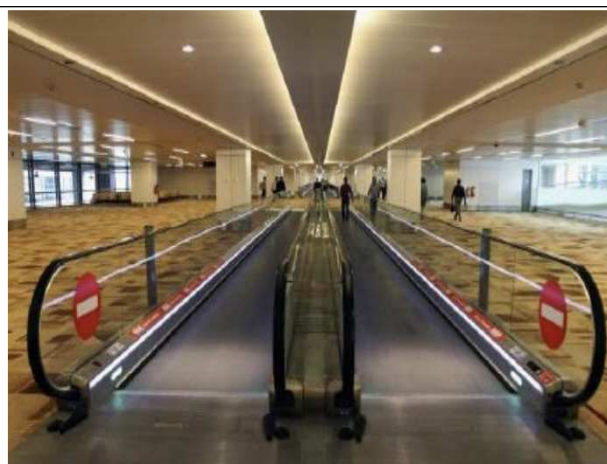


서비스업 수출구성비<sup>1)</sup>



<인도 IT-BPO 아웃소싱 매출액 및 서비스업 수출액/한국은행>

- **현대차 인도 GM 공장 인수 추진** : 현대차 인도법인은 제너럴모터스(GM)의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탈레가온 공장 인수를 추진하고 있음. 현대차는 GM탈레가온 공장의 부지와 건물, 생산설비 등을 모두 인수할 계획이며, 현재 인도정부의 행정절차 등이 남아있음. 현대차는 이 계약을 통해 인도 공장의 연간 최대 생산 대수 90만대 안팎으로 늘어남. 현대차는 1998년 남부 첸나이에 제 1 공장을 설립했고 2008년 2 공장을 세움. 현재 두 공장의 연간 생산 규모는 약 76만대임. 작년 기준 국가별 자동차 내수 순위는 3위를 기록. 현대차는 인도 시장에서 마루티-스즈키에 이어 10% 중후반의 시장 점유율로 2위를 기록함 (출처: 조선비즈, 2023.03.13.)



<인도 델리공항 >

출처: 글로벌이코노믹(2023.03.21.)



< 현대, 인도 공장 생산라인 >

출처: 조선비즈(2023.03.13.)

## ■ 인도진출에 준비 또는 관심 도내기업에 대한 지원책 필요

### • 수출품목 다변화해 인도 내수시장 공략 강화 필요

- 현재 한국 및 인도 간 경제동반자협정(CEPA\*)를 체결한 상태로 특혜관세 적극 활용

\* 상품 무역 이외에도 서비스, 투자, 경제협력 등 FTA보다 넓은 경제협정을 의미

### • 환경오염, 인프라부족, 정부규제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가이드 필요

- 충남 인도 해외통상사무소의 네트워크를 통해 각종규제에 대한 지원활용 권고

※ 연락처 : 하승창 소장(070-4333-3859, hasch73@cepa.or.kr)